

목 차

2	편집인의 글
3-6	이슈나눔
7-8	연구보고서 다이제스트
9-10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소개
11-12	유니버설 디자인
13-15	웹툰 “좋은 일 하시네요.”

발행정보

펴낸곳 사랑랩
펴낸이 배성훈
편집인 김영은
디자인 김영은
발행일 2018. 09 .10

주소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B104호
전화 032-502-1999

편집인의 글

“우리같이, 우리 가치”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영향을 줘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Church Social Responsibility, 역시 CSR)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안교회가 2014년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을 설립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의 한 형태였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CSR을 넘어서 CSV(Creative Share Value, 공유가치창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CSR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당위’를 주장한다면, CSV는 공유해야하는 가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주안복지재단도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우리 주안복지재단은 J·U·A·N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안교회와 주안복지재단의 이름인 주안(Juan)의 영어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각 알파벳마다 독립된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J : Jesus Centered Thinking 예수님 중심의 사고
U : User Friendly Service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A : Advocacy for the weak 약자에 대한 옹호
N : 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

우리 주안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은 운영철학, 전문성, 현장, 조직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이런 우리의 분명한 가치들을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 ‘우리 가치’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편집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유하고, 우리가 먼저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외부의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랩



이슈 나눔

복지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정책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이슈나눔을 통하여 주안복지재단 임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인천사회복지사 처우 열악하다...서울에 비해 80% 수준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은 서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8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서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연봉 2,960만원인데, 인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2,430만원으로 약 530만원의 연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비해서도 연봉이 약 180만원이 낮다.

가까운 수도권에서 연봉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하다보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1~2년 경력을 쌓고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인천에서 취직을 꺼리고 있어,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충원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작년에는 질병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있는데, 병가 유급화가 보장되면 이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병가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해 11월부터 인천시와 사회복지단체들 간의 갈등이 계속됐던 부분이다.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병가를 쓸 경우, 유급으로 인정 해 줬으나, 2017년에 시가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수정

하며 병가를 무급으로 전환 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단순 연봉뿐만 아니라 교육비 등 추가지원도 인천은 없다. 서울의 경우 보수교육비지원 50%, 복지포인트 지급, 처우개선비, 급식비등이 지급되고, 경기도는 보수교육비 100%, 보수교육센터운영, 종사자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인천은 추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도 응답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병가무급화와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고,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며,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상황이 계속 될 경우 지역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수혜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처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2018.07.25. 시사인천

전업맘·직장맘 모두 어린이집 8시간 무료

보건복지부는 7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지금은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는 하루 6시간45분(맞벌이는 12시간) 무료로 이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간당 4000원을 낸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나뉜다. 모든 가정에 하루 7~8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의 무료 기본보육시간을 준다. 이후는 추가보육시간이다.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제공한다. 0~2세 영아들은 오후 4시쯤 대부분

귀가한다. 오후 4시30분 36.4%, 오후 5시엔 20.4%만 남는다.

기본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면 오후 5시까지 80%의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 아동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무력화된다.

2018.08.08. 중앙일보

체불임금도 못 주는데... '아이돌보미 강화' 잘될까

아이돌보미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90점으로 저출산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인 보육 정책이지만 정작 예산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 7934가구에서 지난해 5만 8489가구로 6년 만에 54.2% 늘었다.

그러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발목이 잡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돌보미 5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준비 중이다. 여가부가 추산한 전체 돌보미 체불임금만 모두 1000억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하반기에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투입하는 1000억원으로 돌보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를 현재 9만명에서 2022년 18만명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돌봄 서비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5만 8489가구 중 정부의 지원 없이 시간당 7800원(종합형 1만 140원)의 이용료를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라'급 가구가 43%나 됐다. 가~다급은 이용료의 3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라급 소득 기준(3인 가구 월 442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다. 직장인 서영아(39·여)씨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150%(3인 가구 월 553만원)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배제되는 데다 말 그대로 '검토'일 뿐, 투입 예산이나 도입 일정은 불투명하다.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 돌봄의 질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인력 처우 개선 등의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봄 제도도 밀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7.11. 서울신문

"지연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꺼져" 욕설이 날아들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치료 및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사례관리팀에 소속된 상담원들은 학대 신고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이 진행된다.

한 상담원은 "담당하는 사례 62건 중 이렇게 (아이를) 못 만나고 가는 게 절반쯤 된다. 욕설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상담원들은 정작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분리조처에 불만을 품은 피해 아동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찾아와 성 상담원을 폭행했으며 이에 피해 그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한 해 지원 가능한

상담원은 5명 남짓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자기 돈으로 병원에 다닌다.

한국과 아동 인구수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상담원들은 보통 15~20건을 동시에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명의 상담원이 동시에 60건이 넘는 사례를 혼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아보전 상담원은 한 달에 3~4차례 전화 당직을 한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직 때는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퇴근한다. 한 상담원은 "전화 당직 날엔 샤워할 때도 전화를 욕설에 가져간다. 밤새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사명감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만 위험한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한 상담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타 사업장 발령 및 퇴직 등을 포함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년 30% 안팎이다. 재직 중인 상담원의 연령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평균 근속연수도 1.8년에 불과하다. 전문성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다.

인원 충원 등 현실적인 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아보전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만 늘어나고 있다.

2018.07.25.한겨레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 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실제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은 어떤 경우일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이다. 불법 복제한 폰트를 다운받는 등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단체처럼 폰트를 이용한 사람이 불분명한 경우다. 송시현 동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는 인턴이나 자원봉사자가 카드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며 "제3자가 내려받았다면 단체의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단체 직원이 이용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폰트업체가 폰트 파일을 '개인 또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상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배포한 경우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비영리단체는 이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폰트 이용을 영리적인 행위로 규정한 업체들이 많다.

수년간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폰트를 사용했을 경우, 비영리단체에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서울시 산하의 한 기관이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비영리 무상 이용 조건의 폰트를 사용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히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고소가 어렵다.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지환 변호사는 "실제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폰트 100개 패키지를 사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업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폰트 업체들의 저작권 관련 '합의금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교나 구청 등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게 최근 몇 년 새 비영리 영역까지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박지환 변호사는 "업체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조사해 워드프로세서나 윈도우의 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는 게 가장 좋다"며 "예쁜 폰트가 필요하다면 공공에 기부된 폰트를 사용하거나 이용조건이 명확히 확인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23. 더나은미래



2018

NPO 파트너 페어

부스 참가자 모집

일시 2018. 10. 23(화) ~ 24(수)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2018 NPO 파트너 페어' 부스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8 NPO 파트너 페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 NPO 파트너 페어는 공익활동을 함께할 파트너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작년 1회의 경우 부스전시를 비롯해 세미나, 토크콘서트, 워크숍 등이 조기 마감되면서 2천5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NPO 파트너 페어가 갖는 차별성은 실제 비즈니스 성과나 협업 매칭이 잘 도출되지 않는 여느 박람회와 달리, 관람객과 부스참가자들 간 비즈니스 사례가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스참가자들끼리의 네트워킹과 협업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의 75% 이상이 실무적으로 니즈가 있는 비영리분야 담당자들이었다. 또 부스를 방문해서 상담 후 비즈

니스와 협업을 고려하는 사례는 평균 6~10곳으로 나타났다. 부스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페어 사무국 소통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에도 다시 참가할 의향도 당시 4.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NPO 파트너 페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페어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부스참가자들 간의 정기적인 네트워킹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2017 페어 디렉토리북과 부스참가자들의 소개서를 각 지역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강연 및 교육 영상 등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올해에는 실제 비즈니스나 협업 사례를 조사해 뉴스레터, SNS, 디렉토리북, 언론 등 다양한 채널에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페어 사무국 관계자는 "2018 NPO 파트너 페어에는 파트너 기업과 기관을 찾아야 하는 실제적인 니즈가 있는 3천여명 이상의 관람객 참여가 예상된다"며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및 전문가, 기관들이 부스로 참가해 공익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7.09. 아이뉴스24

연구보고 다이제스트

주안복지재단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치’에 서는 선행 연구 자료의 리뷰를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방향성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교회사회사업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vol.19, 2012. 8. pp.73-121.

이준우 교수의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첫째, 교회와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성경적 본질은 무엇인가?
- 둘째,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 셋째,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의 세 가지 목표 가운데 본 리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둘째와 셋째 목표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역사적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복지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와 같은 전통적 종교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관-인간의 평등, 남녀동등권, 교육의 혁신, 과학의 발달, 역사 의식의 대전환 등-과 함께 역사와 민족의 삶에 희망을 제시했다.

그 이후 알렌(Horace N. Allen)의 광혜원을 통한 의료복지, 홀 여사(Rosetta Sherwood Hall)의 구제사업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들이 실천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낡은 가치관을 바꾸는 사회변혁적인 성격이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철학적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교회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이며 내세지향적으로 방향이 변화되었고,

교회의 사회복지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개인과 조직들에 의한 사회복지가 실천되게 된다.

해방이후 YMCA, YWCA,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의 조직과 각 지역의 뜻있는 개인들은 고아원, 양로원, 인보관(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를 실천하였다. 이 시기는 물적자원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시작되었지만 이때의 시설들이 현재까지도 각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교회내부에서도 사회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조직과 제도자원, 시설자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기초적 준비가 1980-90년대에 이르러 영등포의 도림교회, 신촌의 아현감리교회, 성북동의 덕수교회와 같은 선교적인 교회들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후 사랑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지구촌교회, 분당우리교회 등과 같은 대형교회들을 통해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회 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다.

개교회의 사회복지 실천과 함께 각 교단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을 확립하고 부서를 설립하여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표 1〉 각 교단별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부서의 주요사업

교단명 (설립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사업부서 / 주요사업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1876	사회선교지침 중 사회선교지표 ①민주발전과 참여의 증진 ②정의구현과 약한 자에 대한 관심 ③통일의 모색과 세계평화회의의 기여 ④창조적 민족문화발전회의의 기여	사회봉사부
		사회봉사/사회복지분야 정책 개발, 인권·창조·사회문제 정책개발/현장개발/대책사업, 도농사회선교대학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회복지현장 활성화사업, 사회복지분야 해외협력사업
한국 기독교 장로회 1879	사회선교정책 “①정의와 평화공동체 선교, ②민중지향적 사회선교, ③사회이념의 선도, ④세계패권주의와 군사, 정치, 경제 지배체제의 극복, ⑤남북한 분단현실의 극복, ⑥폭력사용의 죄성과 신앙적 결단, ⑦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참여”	복지선교부
		전국에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주민, 새터민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독교 대한 감리회 1885	사회신경 제6항 “복지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사회평신도국
		여성선교사업, 노동선교사업을 중심으로 출발, 독자적인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및 위탁 운영
대한 성공회 1889	교회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봉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생 배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타파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사회선교국
		나눔의집협의회(총9개)와 전문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그룹홈, 이주노동자를 위한 살림의 집 등 총 70여개)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운영
구세군 대한 본영 1908	영적 복음과 물질 복음으로 표현되는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을 목표로 ①가난한 자의 구원사업, ②지속적으로 기회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③스스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해서 선교요원으로 재생산되도록 지원	사회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노숙인 및 재활사업, 재활용사업, HIV/AIDS 공동체 운영, 상담사업

* 이 표는 이준우 교수의 논문에서 ‘〈표 1〉 각 교단별 설립목적과 사회복지정책 내용’과 ‘〈표 2〉 각 교단별 사회복지사업부서와 주요사업’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임.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이준우 교수의 셋째 목표인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주안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사회복지 실천기관 소개

열매나눔재단(Merry Year Foundation)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을 공표하여 모든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고,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빈민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열매나눔재단은 높은뜻송의교회가 전개하였던 '희년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열매나눔재단의 영어 이름이 'Merry Year Foundation'(희년재단)이 되는 이유다.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웃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 것을 지원철학으로 하며, 소외된 이

웃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또다른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열매나눔재단이 꿈꾸는 생산적인 복지, 새로운 나눔이다.

열매나눔재단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총 5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426개 개인창업가와 92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두루 갖추어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는 자립개발 NGO

사업은 크게 취약계층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 MerryMom 저소득 여성가장지원 : 창업지원, 네일아트 직업훈련, 부채상담지원
- 복지사각지대지원 : 취약계층 아동조식 지원, 취약계층아동 긴급지원, 쪽방촌 긴급지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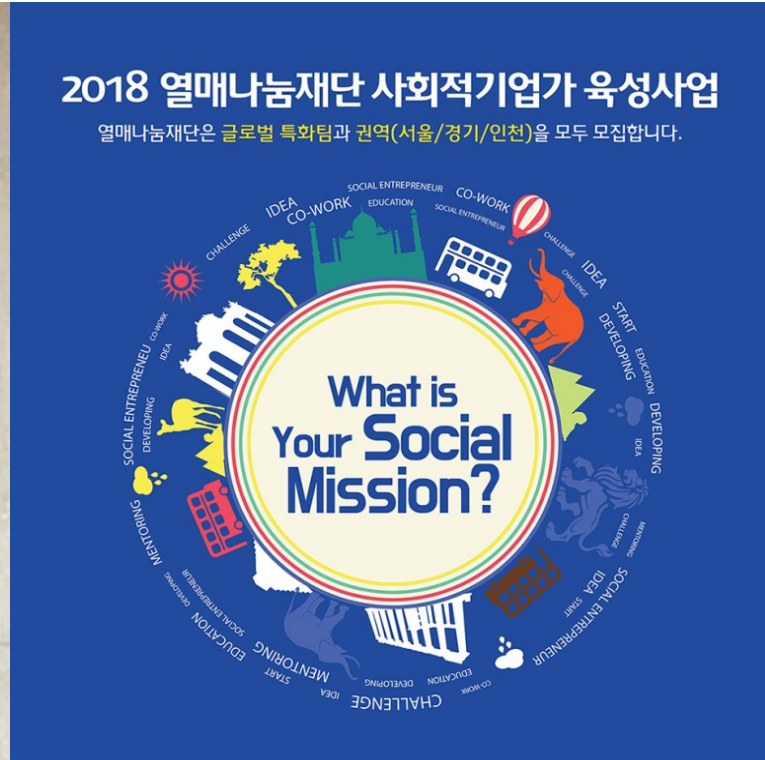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MarryMate 북한이탈대학생 자립지원 : 주거환경 및 생활상담, 진로코칭 등 제공
- MarryFamily 북한이탈주민 가정돌봄지원 : 아동 꿈지원, 심리정서지원, 긴급지원
- MarryStark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 자립을 위한 창업교육과 무보증, 무담보 대출
- 북한이탈주민 비보호아동지원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보호 아동들 (중국출생아동, 제3국 출생아동)을 지원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공간, 사업비, 창업교육,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 설립 초기나 사업의 전환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본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자원연계)를 제공



기관방문 및 코멘트

지난 9월 7일, 주안복지재단 사랑랩에서는 열매나눔재단 기관방문을 진행하였다. 두 시간에 걸친 자세한 사업소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교회와 법인의 관계에 대해 대담이 이루어졌다. 주안복지재단과는 달리 열매나눔재단은 교회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사업적 교류가 거의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후원금의 경우 기업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에서 위탁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매나눔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설실공익법인이며 한국가이드스타가 개발한 투명성 및 책무성지표,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를 적용한 종합평가 결과 만점을 받았으며, 크라운지표인 7개의 증빙을 추가적으로 인증하여 크라운 인증을 받았다.

주안복지재단 역시 크라운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도 문의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열매나눔재단은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법인으로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인 주안복지재단과는 특성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자립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시키기 위하여 고분군투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후원금 활용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개입과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은 특히나 부러운 대목이었다.

‘우리가치, 우리같이’의 본 지면은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사회복지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외모, 생각, 관심, 연령 등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은 제품, 환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을 디자인 할 때 이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모두를 배려하여 디자인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대신에 인클루시브디자인(Inclusive Design) 혹은 디자인 포 올(Design for All)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은 미국의 건축가이자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의 소장이었던 로널드 메이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본인도 휠체어장애자였던 그는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발된 제품이나 환경이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 격리시키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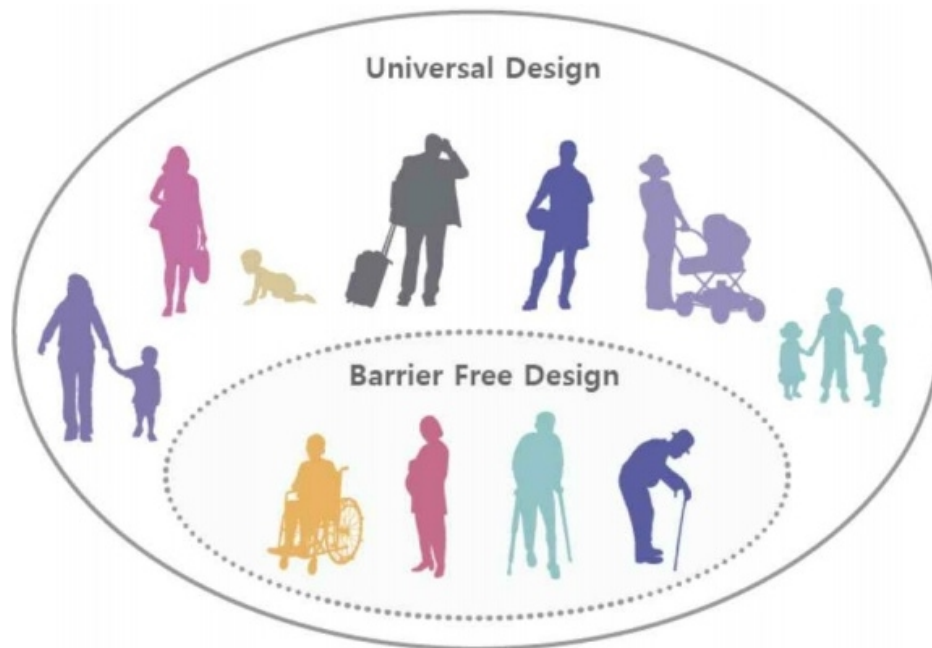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지만, 하나의 디자인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울기가 조절되는 세면대 (Tilting Sink, 출처 : desingboom)





▲ 배리어프리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 범위 (사용자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고영준)

장벽없는 세상에서 출발하여

배리어프리 디자인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현재 장애인, 노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능력과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배리어프리(Barrier-free Design)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barrier)를 제거하고 장애가 없는 제품이나 건물 등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디자인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물리적 장애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점 '물리적 배리어' 외에도 '제도적 배리어', '문화/정보의 배리어', '의식의 배리어'로 장애제거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디자인은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장애가 제거된 제품, 환경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장애가 부각되거나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가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주출입구와 떨어져 있는 건물의 뒤쪽에 설치한 경우, 물리적 장애는 없어졌지만 자기만의 다른 출입구를 사용한다

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장애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하철 정거장에 설치된 리프트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의 리프트는 수직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배리어프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이 일반 사용자와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디자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에 비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한다.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배리어프리디자인을 적용하여 설계된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나무랄 데가 없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대신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화장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은 배리어프리디자인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앞당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인들만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고영준(2011)의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과 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사회복지 웹툰

‘좋은 일 하시네요’ 1화



#. 좋은 사람

2017년 2월 대학졸업과 동시에 -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라는 권유도 많았습니다만,



공부보다는 현장에 얼른 뛰어들어서



부푼 마음을 안고 뛰어난 현장에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좋은 일’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사람’이 한다고 다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소진 쌤!!
봉사자님 한분 뵙고싶대요!
도시락 배달
대여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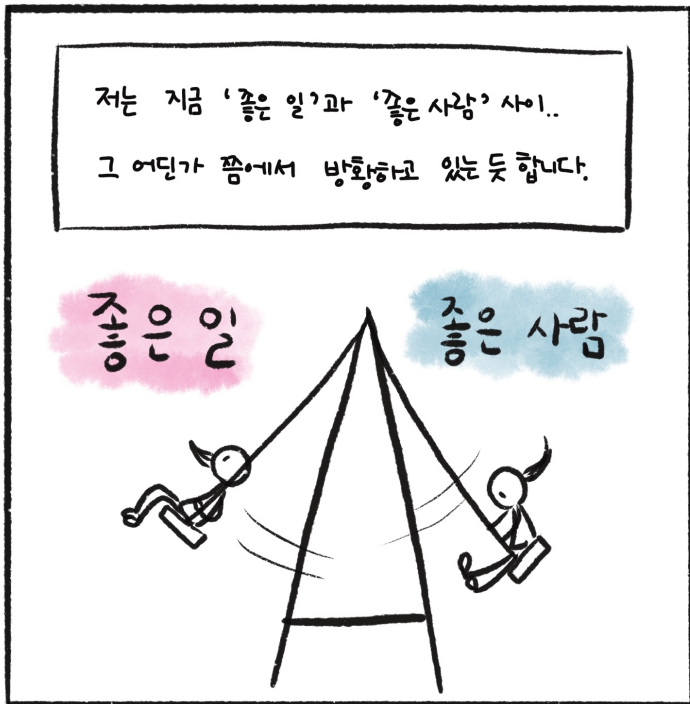


소진 쌤!
어제 구청 데려오고 나서
차량운행일지 안 쓴 거예요?

배배먹으면 곤란해요~

앗.. 네!
천송합니다!





당장은 할수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 웹툰 '좋은 일 하시네요'는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네이버 사랑랩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heosociolog>
- 네이버 도전만화 : "좋은 일 하시네요"
- 다음 브런치 : <https://brunch.co.kr/@saranglab>
- 인스타그램 ID : sojin_jam